

현대불교 연중캠페인

목동청소년수련관은 지난 5월 14일 청소년을 대상으로 '불교이해하기 청소년 포교캠페인'을 계획했다. 이 프로그램은 인터넷시대에 걸맞은 청소년 포교방편이라는 측면에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불러왔다. 실제로 서울 목동중학교 정민호(15)군 등 몇몇 청소년들은 불교



인터넷시대 막자라도 타자

사이버 불국토 만들기

관련 사이트들을 직접 방문해 자연스럽게 불교를 접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흥미를 보였다.

행사가 열리지 못했지만 이같은 시도는 청소년들의 특성을 제대로 파악한 좋은 프로그램으로 받아들여졌다. 부처님께서는 개개인의 근기에 맞게 대가설법을 했듯이 인터넷이 갖가지 정보를 통해 불교를 쉽게 알릴 수 있는 요즘 정보검색대회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현대식 대가설법인 셈이다.

우리나라 인터넷 사용자수가 1600만에 육박하고 그중 다수가 청소년이라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같은 정보검색대회는 청소년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는 점에서 적극 장려되어야 한다. 또한 사이버시대에 법당을 찾거나 경전을 들춰보는 청소년이 없다는 현실속에 청소년들에게 인터넷 가상공간의 사이버 법당 찾게 하고, 사이버 경전을 보게 하는 것도 불교를 알리는 좋은 방법임을 고려할 때 불교계 사이트들이 앞으로 정보검색대회를 자주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할 홈페이지의 경우 지금까지 단순한 사할을 소개하고 법회를 안내하는 수준에서는 청소년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기에 이같은 행사는 필수적이다. 수많은 인터넷 사이트들이 경쟁행사를, 북극제도 등 이벤트를 통해 청소년들의 참여를 유도해 사이트를 홍보하듯이 사할홈페이지도 정보검색대회를 개최해 불자 청소년은 물론 비불자 청소년들에게도 불교를 알린다면 어린이 중고등부 법회 활성화라는 부수적인 효과도 거둘 수 있다.

최근 가상세계의 활동이 현실세계의 활동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여서 정보검색대회 뿐만 아니라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세터준비가 흥미를 느낄 수 있는 콘텐츠를 생산해 내야만 인터넷시대에 불교는 살아날 수 있다.

김두식 기자(dooobi@buddhapia.com)

조계사 신협 '70억 횡령' 발생...교계 꼬리무는 '돈사고'

“경영-재정 투명화 시급”

노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사람을 믿어야 하는 종교단체의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안이하게 삼보장재를 관리하는 풍토가 교계 전반에 깔려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발생한 조계사 신협 공금횡령사건은 바로 이런 요인이 뒤섞여 발생한 사고다. 1년이 넘도록 횡령이 저질러졌음에도 이를 눈치채지 못했다

는 것은 아예 '담대로 쓰라'고 방조한 것이나 다름없는 셈이었다. 이번 사건으로 종단 단체들의 관리운영과 감독의 엄정성이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수준에 크게 뒤떨어졌음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

97년 발생한 조계사 신협 공금횡령사건은 관리감독소홀과 전횡경영 부재가 야기시킨 횡령사건의 전형으로 꼽힌다. 1억

억대가 넘는 거액을 하급간부와 경사원들이 마음대로 주물러왔다는 것이 이를 입증한다. 비전문인들이 요직을 상당수 차지함으로써 정확한 업무피약과 관리가 힘들었던 당시 상황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던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95년 소림사마을 가짜승려 일력의 수습임대 횡령은 불교복지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이

체의 후원금이 불법적으로 유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삼보장재를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끌어다 쓸 수 있는 돈'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99년 조계사 전 주지 현근스님과 경주 불국사 재무관계자의 사할공금 횡령사건, 98년 군송단 군법사들의 공금횡령 및 불사비리사건도 이와 다르지 않다. 돈이 어떻게 들어와서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한 재정투명성 확보가 시급한 과제임을 새삼 일깨워 준다.

교계의 한 재무 관계자는 "삼보장재를 자기 돈처럼 여기는 사람들도 문제지만 각 사할이 여기에 최근에는 모 복지단

조계종 총 정 해암스님(사진)은 하안거 해제 해암종정 법어발표

조계종 총 정 해암스님(사진)은 하안거 해제 해암종정 법어발표하고 임하는 정진을 당부했다.

조계종 등 전국 70여 선원에서 지난 4월 15일(음력)부터 2500여명의 스님들이 참선수행 하는 결재에 들어갔으며, 14일 80일간의 정진을 해제했다. <법어 전문 3면>

정성운 기자

“불자 국민들께 대단히 죄송”

정대스님, 조계사신협 횡령사건 사과

조계종총무원장 정대스님은 조계사신협 고객예치금 횡령사건과 관련, "불의를 일으켜 불자들과 국민들께 대단히 미안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정대스님은 11일 조계사 주지 지홍스님과 총무원 부·실장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조계사신협은 총무원과는 다른 별도의 법인이지만 교계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조계종 집행부 수장으로 서 죄송한 마음을 금할 수 없

다"고 말했다.

정대스님은 또 "지금은 가입자들의 피해를 줄이고 수습할 시기"라며 "조계사 주지 인사는 사태 수습 이후 내가 알아서 할 것이다"고 밝혔다.

정대스님은 횡령금액이 총무원장 선거자금으로 흘러들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아무리 파렴치해도 신협의 돈을 선거에 썼겠느냐"며 의혹을 일축하고 "절제한 수사를 촉구했다"고 말했다. 정성운 기자 (swjung@buddhapia.com)



위안부 추모위령탑

일본군 위안부 추모 위령탑이 11일 위안부 할머니들의 보금자리인 경기도 광주군 나동읍의 집에 세워져 광복 55주년을 더욱 뜻 깊게 하고 있다. 연꽃의 이미지를 담은 위령탑에는 할머니들이 불국정도에 태어나길 기원하는 불자들의 비문이 함께 담겨있다. 사진=고영배 기자

경단체 대표로 이세종 환경연합 공동대표, 이병철 녹색연합 공동대표, 김상민 환경정의시민연대 공동대표 △문화·예술계 김지하 시인, 김정현 문화개혁시민연대 상임집행위원장 △사회단체 이종훈 경실련 공동대표 △학계 최창조 전 서울대 지리학과 교수 등 11명의 공동대표를 추천했다.

준비위는 추가로 8명의 공동대표를 추천해 오는 30일 오후 2시 프레젠테이션 국제회의장(도)에서 세종문화회관 대회의장에서 창립총회 및 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조계사 신협 과장이 고객예치금 70억 횡령

조계사 신용협동조합(이사장 지홍·조계사 주지)에서 직원 70여명의 고객예치금을 빼내 주식투자 및 구권회 매입 등에 사용한 횡령사건이 발생. 조계사 신협 송석운 과장(44)과 신협 감사 조덕동(39, 조계종 총무원 재무과장)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지난 1일 종로경찰서에 구속됐다. <관련기사 3면>

이에 따라 조계사 신협은 횡령사건이 확인된 직후 임시이사회를 열고 업무정지 결정을 내렸다. 업무정지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대출금에 대한 원금

및 이자상환을 제외한 모든 업무가 중단됐다.

조계사는 7월 26일 외부 회계법인을 대동, 신협에 대한 자체 감사를 발의한 결과 송과장이 50억원 가량의 고객예치금을 빼내 주식에 투자한 사실과 송과장과 조과장이 함께 구권회 매입을 위해 24억원을 불법인출한 사실을 밝혀냈다.

사과당시 신협 회계상에는 모두 68억여원이 횡령된 액수로 파악됐으며, 이중 20여억원이 환수조치돼 48억원의 손실이 난 것으로 잠정 집계되고 있다. 한영우 기자

붓다뉴스 새연재

buddhanews.com

'N세대 위한 불교강의' '한타지아 실크로드'

현대불교신문사는 인터넷 현대불교 '붓다뉴스'에 'N세대'를 위한 불교이야기를 이달 16일부터 선보인다. 아울러 소설가 정찬주씨의 문학기행문 '한타지아 실크로드'를 지난 8월초부터 연재하고 있다.

N세대를 위한 불교이야기는 새로운 세기를 맞아 새 문명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불교사상을 젊은이들에게 쉽고 재미있게 알리기

위해 마련된 불교강좌. 독자들은 이 강의를 통해 불교의 인생관, 자연관, 역사관, 찬란했던 불교문화, 지혜의 내한반도 선사상, 생활속의 불교등 불교 가르침을 쉽고 광이하게 만나볼 수 있다. 강사는 종단법사무국장 법현스님, 문학평론가 김홍근씨, 소설가 정찬주씨, 종교상고 최시선 교사이다.

한편 '한타지아 실크로드'는 동방불교 100주년을 맞아 교계 사이버매체로는 처음으로 정찬주씨가 문학기행문 '한타지아 실크로드'를 지난 8월초부터 연재하고 있다.

N세대를 위한 불교이야기는 새로운 세기를 맞아 새 문명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불교사상을 젊은이들에게 쉽고 재미있게 알리기

16 나한 木 500 나한

규격×높이 : 1자 (30cm)

나한이란? 모든 사람의 존경과 공양을 받을 만하고 공익을 두루 갖춘 성자를 말합니다.

木 나한의 특징

- 혼이 담긴 작품으로 정교하게 조각되었습니다.
- 반가격으로 보시해 드립니다.
- ※ 스님의 주문에 따라 상호와 크기(규격)를 별도 제작해 드립니다.
- ◇ 전화주시면 사진을 보내드립니다.

나한의 공덕

- ① 살적(殺賊) 우리 마음속에 자리잡고 있는 나쁜 생각을 떨쳐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응공(應供) 우리에게 말과 행동의 모범이 되므로 정성을 다하여 공양해야 합니다.
- ③ 불생(不生) 나한은 뼈를 깎는 수행을 하고, 마음의 평정을 방해하는 마음의 적을 없앴기 때문에 다시 태어나는 윤회의 고통이 없습니다.

한국불교전통공예

서울 중랑구 망우3동 518-34(효성빌딩)
 대표전화 : (02) 494-4890